

월요광장

병오년 새해를 맞으며



박 석 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지난 을사년은 을사늑약이라는 국권 상실의 비극이 있던 지 두 번째 해였고, 곧 12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해는 국권을 잃은 모든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서러움에 젖었지만, 지난해 을사년 4월 4일에는 내란의 수괴인 대통령을 현법재판소에서 판결로 파면시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낸 해였다. 전전 해인 2024년 12월 3일 불법 무도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로 내란을 일으키자 의문은 국민들이 여의도로 달려가 맨몸으로 중무장한 계엄군에 맞서서 내란을 막아내니, 국화는 재빠르게 계엄 해제를 의결하여 국가폭력을 중지 시킬 수 있었다.

그런 정치적 소용돌이를 목격하면서 나는 바로 “5·18 정신이 나라를 살렸다”라는 칼럼을 신문에 기고하여 위대한 광주의 저항정신이 나라를 구한 역사적 사실을 대서특필하였다. 그 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현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 모든 언론과 국민의 여론은 이론(異論) 없이 5·18 정신이 내란을 막아 망하던 나라를 구해냈음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위대한 5·18 정신은 끝내 나라를 구해낸

장엄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에 이르렀다.

광주가 어떤 곳인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군홧발에 짓밟힌 곳, 수천 명의 양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당한 곳,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국가폭력에 무릎 꿇지 않고 일어선 곳,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으로 맞선 곳, 그곳은 빛고을 광주였다. 그래서 광주는 민주주의 성지이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하면 광주는 또 독립운동의 성지였다.

죽음을 불사하고 계엄군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막아서는 5·18 정신은 2024년 12월 3일 야밤 여의도에서 다시 살아난 반란군들의 총칼 앞에 맞서고 장갑차 앞에 막아서는 의훈을 발휘했으니, 5·18의 교훈은 역사적 교훈이 되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애국심으로 다시 살아났다. 여의도의 저항운동에 그치지 않고 한 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눈보라에 묻히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던 정신, 남태령에서 경운기를 이끌고 서울로 진입하던 저항, 모두 5·18 정신이 함께 해 준 뜨거운 의훈의 승리였다.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 일으킨 공산 폭동이니, 불순 분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온갖 거짓 선전으로 위대한 민주시민들을 내란폭동으로 몰아 집단 밭포로 학살하고 감옥에 넣어 얼마나 많은 고문을 가했던가. 그래도 민주 시민들은 총칼에 굽히지 않고 오히려 총을 들고 도청을 사수하는 저항정신을 잊지 않았다. 그런 무서운 저항정신이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부활하여 우리는 끝내 운석열을 파면시켜 감옥에 보내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더디

고 마음에 맞지 않는 수사와 재판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는 해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내란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다시는 그런 내란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문제는 금년 병오년의 일이다. 어떻게 해야 내란 세력들의 악행을 제대로 찾아내 법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들의 반란심을 밝은색원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영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이다. 내란의 수괴나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형량이 무기 아니면, 사형뿐이다. 과연 이런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다. 5·18 쿠데타 등 수많은 내란에 법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잘못으로 12·3 쿠데타를 또 겪어야 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5·18 정신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 전문(前文)에 5·18 정신을 확고하게 넣어야 한다. 내란 세력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헌법에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란 세력의 척결과 동시에 헌법개정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가능한 빠른 시일에 이루해 내야 한다.

역사는 정의와 진실을 갈구하고 있다. 5·18 정신이 나라를 살려낸 엄연한 사실을 목격하고도 헌법전문에 5·18 정신의 수록을 늦출 이유가 있겠는가. 국민적 합의가 무르익은 이제, 헌법개정을 통한 내란의 영구적 추방은 오직 제도적 장치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국가폭력에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5·18 정신이 살아 있을 때에만 민주주의는 지켜지고 내란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수필의 향기

새해, 희망을 찾습니다



박 용 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새해입니다. 새해는 더 맑은 꿈, 더 고운 희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원서에 이름을 적으며 잠시 꿈에 부푼 취업준비 생처럼, 파도를 가르며 만선을 꿈꾸며 출항하는 어부 처럼, 떨리는 가슴으로 연예편지를 받아 든 소녀처럼, 전역 날짜를 기다리는 신병처럼, 첫 문장을 써 놓고 노벨문학상을 그려보는 시인처럼, 예식장 단상에 막 오른 우아한 신부처럼, 첫 월급을 받아 든 어린 회사원의 눈빛처럼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거든 차라리 자기 자신을 바꾸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누군가 확신, 신념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는 물론 통념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통념을 깨는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화순 운주사를 공부한 지 반세월, 운주사의 의미도 천불천탑, 칠성바위, 와불도 의문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법화경을 읽으면서 그 수수께끼가 하나둘 풀었습니다. 운주사는 바로 영산회상도를 지상에 재현한 곳이었습니다. 석조

불감이 아니라 다보탑, 와불이 아닌 아미타불이었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전상의 법화경 28품을 지상에 오롯이 재현한 엄청난 불사였습니다.

불경에 대해 모든 숙맥도 ‘견보탑품’ 조금만 읽어보니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학자들조차 풀지 못한 퍼즐을 박춘기, 박형상 변호사가 문학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를 들어 재차 풀어주었습니다. 그간 체증이 쑥 내려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실마리는 찾았다고 김병태, 임동택, 박형상 선배님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운주사 바로보기, 흥보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기존 운주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귀를 막는군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리며, 우리들이 전문가나 전문위 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역사적 문헌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 하면 합구 합니다.

새해입니다. 설날은 한 해 첫날이지만 희망이라는 보물을 찾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떡담을 주고 받으며 사랑과 희망을 찾아보시게요. 나와 가족을 넘어, 소외된 이들 모두에게 새해는 희망이 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실 주인은 취준생에게 커피 한잔에 희망을 얹어 주었으면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처를 따뜻한 온기로 감싸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친구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도 이웃의 온정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이에는 믿음과 신뢰가 깔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귀를 내어 주는 것도 희망입니다.

운주사 이야기에 귀를 닫지 않으면 합니다. 운주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법화경 이야기를 하나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운주사는 어두울 때 더 빛났습니다. 1980~90년대 절망의 시기에 작가나 민중들은 운주사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운주사는 백제의 미소였으며 언제나 남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신비의 운주사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신천지처럼 종교가 타락한 무신정권 시대에 불교 정회 운동인 ‘백련 결사’ 현장이 운주사입니다. 운주사는 안개가 벗겨졌을 때도 여전히 아름답고, 진실을 드러냈을 때도 그 가치는 활짝 더 빛이납니다.

세상 여기저기 종교, 이념, 경제 문제로 어듭니다. 인간을 구원해야 할 종교가 궁전을 짓고 인간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린 희망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운주사 나팔수가 되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텁 하나 세우고 희망을 잊지 않고 나갈 생각입니다. 희망은 자체만으로 훌륭한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저는 그 절망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 절망을 딛고 우리 함께 일어서보시게요. 희망, 힘-앙, 힘 악물고 기다려야만 온다는 의미 아닐까요, 우리 모두 새해는 각자 하나씩 희망을 찾아 걸어가 보시게요.

기 고

한겨울 광장에 세운 약속, 2026 나눔캠페인



전 하 영
광주사랑의열매 주임

겨울 기운이 내려앉은 5·18민주광장에 올해도 어김없이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온도탑이 세워졌다. 대형 트리 옆에서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구조물은 단지 모금 현황을 표시하는 도구를 넘어 광주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 온도탑은 대국민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학생의 작품 ‘사랑은 굴뚝을 타고’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작은 온기가 굴뚝을 타고 퍼져나가는 이미지는 나눔의 의미를 소박하지만 깊게 담아낸다.

12월 1일 열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은 광주가 이어온 연대의 문화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시민사회가 해마다 이어온 나눔의 의미가 다시 한 번 보이고, 오랜 시간 광주를 지탱해 온 공동체적 힘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광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추진 중이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목표액은 51억 2000만 원이며,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오른다. 목표가 달성되면 온도탑은 100도를 기록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광주는 100도를 초과 달성하며 탄탄한 지역 나눔 문화를 증명해 왔다. 이 기록은 단순한 성취를 넘어 광주가 서로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읽힌다.

광주의 겨울이 더 따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며, 이웃의 삶이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나눔은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품격을 보여주는 실천이 된다.

사랑의온도탑은 오늘도 광장 한가운데에서 빛을 밝히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온기가 지역 전반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통로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갈 것이다. 그 빛이 100도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시민의 마음이 모이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연대가 다시 한 번 광주의 겨울을 지켜내길 바라며 이 캠페인이 지역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확실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고령화의 가속화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사회 안전망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시민 참여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사랑의온도탑 앞에 놓이는 한 사람의 마음, 작지만 진심 어린 기부는 사회복지 현장의 빛을 메우는 힘이 된다.

광주의 나눔은 언제나 시민 한 사람, 한 조직의 선택에서 출발해 도시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 왔다. 5·18민주광장의 한가운데에서 운동의 수은주가 오르는 모습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내미는 손길의 높이가 얼마나 달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광주의 겨울이 더 따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며, 이웃의 삶이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나눔은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품격을 보여주는 실천이 된다.

사랑의온도탑은 오늘도 광장 한가운데에서 빛을 밝히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온기가 지역 전반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통로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갈 것이다. 그 빛이 100도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시민의 마음이 모이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연대가 다시 한 번 광주의 겨울을 지켜내길 바라며 이 캠페인이 지역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확실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社会

광주·전남 행정통합… 메가시티 실현의 지름길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연초 지역의 최대 학제다. 지난 연말 김영록 전남지사의 제안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합의하니 새해 들어 시도지사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식 선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늘 각각 통합추진 단을 출범하고 양 측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뒤 2월말까지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제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5·13 특제제는 수도권 1권 체제에 맞서 광주·전남 등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것이다. 광주·전남·제주·전라·경상 등 5개의 초광역연합이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법적 토대를 마련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메가시티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광주전남 메가시티는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 입장에선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메가

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지름길이다. 이제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도 부합하는 것으로 행정통합을 통해 5·13 특제제의 주도권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통합에 성공할 경우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권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초광역자치권 강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광역 단위 산업전략을 추진하는 데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광주·전남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신산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장점도 있다.

지역 여론도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시민 700명의 71.7%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이었다.

1986년 광주·전남이 분리된 후 지금까지 세 차례 행정통합이 추진됐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쳐 흐지부지 됐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태스크를 속에 창설하면서 메가시티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광주전남 메가시티는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 입장에선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과시켜야 한다. 40년 만의 행정통합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광주·전남 노년층 3분의 1이 생계난이라니

광주·전남지역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역대 최고인 71만4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일하는 노인’ 역시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의 ‘생애단계별 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역 노년층 인구는 광주 24만 9000명, 전남 46만5000명으로 1년 만에 4.2%(2만9000명) 늘었다. 청년층 인구가 같은 기간 광주 2.5%(1만1000명), 전남 2.3%(9000명)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전남의 경우 노년층 인구 비율이 27.3%로 이미 심각한 고령화사회인데도 청년층 인구는 줄고 노년층 인구는 늘고 있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일하는 노년층 대다수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이란